
제2차 이사회 회의록

한국기록관리학회

1. 이사회

1.1. 회의 개요

- 일시: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오전 11:00 ~ 오후 01:00
- 장소: 한성대학교 상상관 205호
- 참석자: 김지현, 이재운, 박희진, 신정아, 이지수, 박진호, 윤은하, 황진현, 송정숙, 김영식(위임장), 김장환(위임장), 이은주(위임장), 노지현(위임장), 박지영(위임장), 강성봉(위임장), 김명훈(위임장), 김바로(위임장), 김선태(위임장), 남재우(위임장), 노예리(위임장), 안대진(위임장), 이경남(위임장), 이성신(위임장), 이젼마(위임장), 임진희(위임장), 현문수(위임장), 김종애(위임장), 이정연(위임장), 이해영(위임장), 이연창(위임장), 이해원(위임장)

1.2. 보고사항

가. 편집위원회

- 학회지 23권 1호 발행(논문 6편, 사례보고 1편) 및 23권 2호 진행
- 『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』 개정판 준비 상황 보고
- 『사례를 통해 본 기록관리: 공공과 민간을 넘어』(가제) 발간 준비 보고
- 편집위원 추가 선임: 박광현 교수님(대구대 문헌정보학과)

나. 오픈엑세스 학술지 출판 TF

- TF 조직 구성 보고(위원장 이재운 교수님)
- 누리미디어의 신규계약 요청 처리 결과 보고
- FOAA 권고안을 참고하여 학회지 수입지출결산서 공개 방법 검토 중, 연말 이사회에 결산서 공개안 상정
- 저자부담논문출판비 경감 방안 준비
- DOAJ 등록추진 결정(올해 준비하여 내년 등록 추진)

다. 연구이사회

- 2년간 4회의 학술대회를 주제에 따라 연구이사 중 대표를 정하여 진행
- 기존의 봄철 학술대회 오전 학생발표를 기록관리 박사졸업자 논문발표로 진행하기로 함
- 23년도 춘계 학술대회 주제는 AI와 기록관리, 추계 학술대회는 미술아카이브로 정함

라. 총무

- 회칙개정의견 수렴결과 보고
- 대통령기록물시행령 대응 내용 보고
- 회비 및 이사회비 보고
- 간사명칭 변경 방안 보고
- 편집간사, 총무간사 직무기술 내용 보고

1.3. 논의사항 및 결과

가. 보고사항에 대한 논의

① 현 논문출판 시 저작권과 투고료 형평성 문제

- 저작권도 학회에 넘기고, 투고료를 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
- 투고 시 CC라이선스에 대해 선택하고,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는 것으로 변경이 필요함
- 출판 TF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며, 향후 학회 수입지출을 검토하여 재논의

② 학술대회 진행방식

- 학술대회 오전 박사논문 발표를 준비하였으나 배출 인원이 적어 어려움이 있음
- 향후, (이전사례로 있으니) 석사까지 확대하여 진행
- 가을 학술대회는 미술을 주제로 선정하였으나, 기록학회와 공동추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향후 변경될 수 있음
- 기록학회와 공동추진은 긍정적이거나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(세션 수, 주제 등)

나. 개론서 및 사례집 필진 원고료 책정

- 개론서 집필진에 집필료 50만원(1인당) 집행
- 사례집 집필진에 20만원(1인당) 집행하고, 향후 저작권료 수입발생 시 집필진에게 다시 배분

다. 저자논문출판비 경감방안

- 전체 3개(안)¹⁾ 중 TF에서는 1안이 가장 현실성있는 것으로 논의
- 향후 기록연구자가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관회원 연계와 연회비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(현실성 여부)
- 1년 수입/지출 확인 후 최종(안) 결정 필요

라. 가을 학술대회

- 가의 ②참조

마. 학회 시상관련(학술상)

- 국내, 국외 사례조사 및 이전 우리학회 논의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술상의 종류는 거의 동일함(연구상, 우수 논문상, 베스트 리뷰어상, 공로상, 우수 기관상, 신진연구자 우수상 등)
- 학술상 대상 선정보다 선정방법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, 추후 재논의 필요

1) 1안: 전체 저자가 학생 및 비소속 연구자인 논문에 논문출판비 면제

2안: 연구비 지원받지 않은 논문의 저자논문출판비를 현재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할인

3안: 게재료 할인과 단체회원 가입 연계